

창립 30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물품을 지원하며 국외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다. 4월 27일 안산에서 선적식을 개최하고 국제구호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제구호사업 본격화…의료물품 지원 나선다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③

글로벌 의료물품 지원 나선 30돌 생명나눔

안산=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내를 넘어 국외로까지 자비나눔을 실천하며 활동 영역을 넓힌다. 의료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물품을 지원키로 한 것.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첫 국가를 캄보디아로 선정, 국제구호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4월 27일 안산에 위치한 (사)글로벌생명나눔 제1물류창고에서 '캄보디아 7차 지원물품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적된 의료물품은 20억원 상당으로, 캄보디아 정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캄보디아 의료물품 시장은 매우 작은 규모로, 제약산업 기반이 취약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캄보디아는 호흡기 질환과 혈액 내분비, 신생아 장애 등에 의한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기본 의료물품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지만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특히 저소득층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태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생명나눔과 협업, 캄보디아에 물품을 전달키로 했다. 앞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1년 10월 1일 글로벌생명나눔과 업무제휴 협약식을 갖고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상호 협력키로 한 바 있다. 협의안에 따라 의료물품은 글로벌생명나눔에서 후원하고,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는 배송비를 책임진다.



일면 스님은 선적된 의료물품의 포장을 꼼꼼히 살피며 안전한 운반을 염원했다.



일면 스님은 선적식에 앞서 물류창고를 둘러보며 해외에 지원할 다양한 물품을 살폈다.

2018년 설립된 글로벌생명나눔은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국제구호NGO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전달해 해당국가의 의료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평균수명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기자재, 학용품 등의 교육 인프라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의 미래 역량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다. 2022년 4월, 1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하기 시작, 이번까지 총 99억6000만원 상당을 전달한 상태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2018년부터 16개국에 36차례에 걸쳐 전달한 의료물품이 443억원에 달한다. 글로벌생명나눔은 이번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한 캄보디아 지원을 계기로 6월경 캄보디아 정부와 5년간 2500만불의 지원에 대한 MOU를 맺을 예정이며 추후 깜뽕스프, 씨엠립, 다케오 등 3개 주정부와도 업무협약을 논의키로 했다.

글로벌생명나눔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의료물품 지원이 열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선다. 미얀마,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지원 대상 국가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의료 지원 체계가 빠른 시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선적식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어떤 재난이 국가에 닥치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제일 먼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부처님의 손길을 내밀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캄보디아에 의료물품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계일화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적식에 동참한 정현숙 후원회장도 "오늘 큰 규모의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다"면서 "세계의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위원회 박종우 회장도 "이번에 보내는 의료물품이 캄보디아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모든 생명 존중받는 세상 만드는 데 일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법인 창립 30주년을 맞아 해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 보내기 사업을 시작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30년의 역사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특히 의료물품 보내기 사업을 시작한 것은 경제불황과 기후위기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의료 취약국 취약계층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의료물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 취약국의 경우 외환보유고에 따라 필수 의료물품을 구할 수 없어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면 스님은 "국가부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 개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 인류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의료물품 지원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범 사례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 30주년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2024년 30돌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합니다. 공동 캠페인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의료물품 배송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일화 가르침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 후원계좌 : 농협 053-01-271485
- 홈페이지 : www.lisa.or.kr
-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제15회 생명나눔 플로깅 생명사랑 환경사랑 30

2024. 5. 25 (토)
오전10시 부터 오후2시

동국대학교 만해광장

(걷기코스 : 만해광장 - 남산공원 둘레길)

참가대상
청소년 및 참가를 원하는 국민 모두

참가방법
단체_ www.lisa.or.kr 접속 후 사전접수
개인_ 현장 접수

오시는 길
3 호선 동대입구역 3번 출구
4 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문의
02-720-8050

준비물
비닐봉투
장갑
운동화
편한 옷차림

주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